전남지역 곳곳에서 지급받은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아동가정에게 기부하는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혜경, 김미애, 오진식, 김왕성, 조현의씨.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제공〉

"나 보다 더 어려운 이웃 도와야죠"

재난기본소득으로 취약계층 아동돕기
순천·광양 등서 나눔의 손길 잇따라
지인들에 '기부 릴레이' 권유하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 취약계층 아동을 돕는 '기부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29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따르면 전남지역 곳곳에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취약계층 아동가정에게 기부하겠다는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에서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인 김혜경(38·광양시)씨는 평소에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기부하고 있었지만 광양시에서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에 "나 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양지역 아동가정에게 쓰였으면 한다"며 광양사랑상품권 카드로 지급받는 금액만큼 현금으로 재단에 기부의사를 밝혔다.

광양시 중마동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중인 김미애(52·광양시)씨는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 나보다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본인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부했다. 또 같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 오진식(32·여수)씨와 김왕성(35·순천)씨에게도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권유해 나눔릴레이를 이어나갔다.

또한 순천에서 퓨전 한정식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현의(47·순천)씨는 "이번에 정부에서 재난기본소득 전 국민 대상 지급확정을 보고 어떤 형태로든 내가 받는 재난기본소득을 나보다 더 어려운 아동가정에게 기부해야겠다고 다짐을 했다"면서 5월에 지급받게 될 정부 재난기본소득 기부 약정을 진행했다.

한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는 지난 2월부터 전남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아동가정 발굴 및 생계긴급지원을 실시해 지금까지 총 1억1500만원의 현금·현물을 지원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박수봉 본부장은 "긴급지원 신청을 한 대상자 중에서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모자가정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역할을 하는 이들이 무급휴직을 권고 받거나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남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피해는 적었지만 우리사회 곳곳의 보이지 않은 곳에 소외계층 아동가정이 늘고있으며 이들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캠코 광주전남본부, YOUTH 혁신·청렴위원회 출범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홍창의)는 29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YOUTH 혁신·청렴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출범식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혁신 청렴문화 확산과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강의나 결의대회로 이뤄지던 출범식 대신 청렴 정책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코 광주전남지역본부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공유하고 수평적 관계를 통한 사업별 융합을 위해 최근 5년 이내 입사 직원 10명으로 구성해 청렴위원으로 임명했다.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부정부패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과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 청렴위원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으로, 혁신 청렴 정책 실행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창의 본부장은 "전 직원들이 청렴 문화 확산에 힘써 고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여수 출신 가수 김동규 세 번째 앨범 'Memory' 발표

여수 출신 가수 김동규가 최근 세 번째 싱글앨범 'Memory'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한 두 번째 싱글 Part2 'SAD'에 이어 10개월 만의 신보다.

김씨의 자작곡으로 구성된 이번 앨범에는 'My Friend', '빈자리', '가슴속의 사랑' 등 세 곡이 담겼으며 앨범 자켓 사진은 그의 딸이 직접 그린 그림으로 제작했다.

'My Friend'는 유년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이루게 응원해준 친구들을 생각하며 만든 곡으로 지난 2018년 앨범 '엔돌핀' 제작에 도움을 준 친구들에 대한 우정을 이야기한다.

'빈자리'는 8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만든 국악가요이며, '가슴속의 사랑'은 그의 지난 사랑에 대한 헌정곡으로 가슴 속 깊이 묻어둔 아련한 마음을 몽환적인 모던락으로 편곡했다. '예 행님', '아리랑길'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가수 최민이 작사에 참여했다.

여수 출신인 김 씨는 지난 2010년 무명 10년 만에 데뷔앨범 'Wating for ten years'를 발표, 타이틀 곡 '앵콜'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국악부터 통기타까지 다양한 공연으로 지역 축제나 행사, 방송 등을 통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혜은이-김동현 '황혼이혼' … 30년 부부인연 마침표

가수 혜은이(64)와 배우 김동현(70)이 이혼했다.

29일 가요계와 방송가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상호 협의로 부부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다.

두 사람은 1990년 결혼했다. 김동현이 사업에 연거푸 실패하면서 혜은이가 오랜 세월 거액의 빚을 갚아나가는 등 어려움을 함께한 사연은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잘 알려졌다.

혜은이는 1975년 '당신은 모르실거야'로 데뷔해 최고 전성기를 누렸지만 결혼 전에는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노릇을 했고 결혼 후에도 이 같은 어려움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그는 '진짜 진짜 좋아해', '당신만을 사랑해' 등의 곡을 발표하며 인기를 유지했고 환갑이 훌쩍 넘은 최근까지도 활발하게 무대에 서고 있다.

김동현은 1978년 영화 '마지막 겨울'로 데뷔했으며 드라마 '아내의 유혹', '대조영'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한편, 혜은이는 이날 오후 10시 방송할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해 가수 인생 45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연합뉴스

임종안 전남유도회장, 코로나 극복 지역 유도장에 성금 1000만원

전남유도회 임종안(71·사진)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전남지역 유도장을 위해 성금 1000만원을 전남유도회에 기탁했다.

전남도유도회는 최근 임종안 회장의 기탁금 1000만원을 20곳의 유도장 관장들에게 50만원씩 지원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도내 일선 유도장이 장기간 휴관하고 행사 및 각종 대회가 연기되는 등 유도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관장들에게 임종안 회장이 사비를 출연해 지원금을 마련한 것이다.

임종안 회장은 순천팔마체육관 내에 위치한 전남유도회 사무실에서 전남지역 유도장 관장들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내자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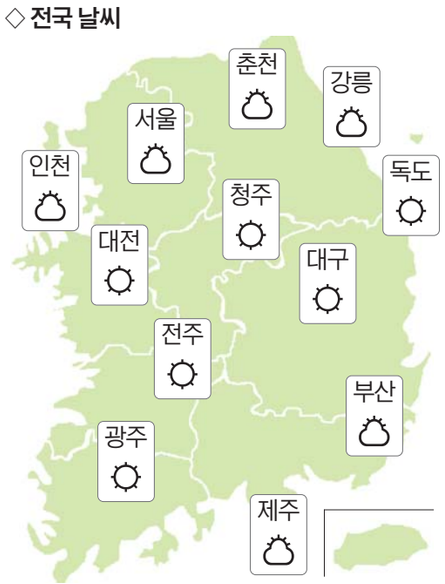
해뜸	05:42	달뜸	11:05
해짐	19:17	달짐	00:59

석가탄신일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9/26	보 성	맑음	4/21
목 포	맑음	11/21	순 천	맑음	7/23
여 수	맑음	11/20	영 광	맑음	9/24
나 주	맑음	6/25	진 도	맑음	11/21
완 도	맑음	10/22	전 주	맑음	9/27
구 례	맑음	5/26	군 산	맑음	8/24
강 진	맑음	7/22	남 원	맑음	4/26
해 남	맑음	8/21	흑산도	맑음	11/19
장 성	맑음	5/25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m)	파고(m)
서해 남부	앞바다	0.5~1.0	0.5~1.0
	먼바다(북)	1.0~2.0	1.0~2.0
	먼바다(남)	1.0~2.0	1.0~2.0
남해 서부	앞바다	0.5	0.5
	먼바다(서)	0.5~1.5	0.5~1.5
	먼바다(동)	0.5~1.0	0.5~1.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12:14	06:54
	--:--	18:56
여수	07:44	01:32
	19:53	13:30

◇ 생활지수

감기	뇌졸증	미세먼지
보통	보통	보통

◇ 주간 날씨

5/1(금)	2(토)	3(일)
16/28	15/27	15/25
4(월)	5(화)	6(수)
15/26	12/26	13/26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0일 (음 4월 8일 癸卯)

☎ 010-9790-8237

子 36년생 형식 뿐 만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까지 갖춰야겠다. 48년생 기반이 견고하니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60년생 실행을 보류하고 내실을 기하는 것이 옳다. 72년생 탐탁스럽지 않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용이하다. 84년생 많이 늘어났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96년생 지켜보고만 있을 정황이 아니니 직접 뛰어 들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8, 56

丑 37년생 학수고대하여 왔던 희소식을 접한다. 49년생 과거에 쌓아 놓은 은덕으로 인해서 특별한 배려나 사례를 받을 수다. 61년생 간접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73년생 예견 되는 대국은 사전에 철저히 차단되어야만 한다. 85년생 일단 성사시키고 볼 일이다. 97년생 겉으로는 즐거운 체 하겠지만 속마음은 불편하리라. 행운의 숫자 : 02, 61

寅 38년생 발버둥 쳐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다. 50년생 객관적이지 못해서 사실상 이루어질 가능성은 약하다. 62년생 아무 것도 아니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74년생 반복한다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86년생 과감한 변화를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98년생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자. 행운의 숫자 : 51, 71

卯 39년생 길조가 보이니 세심하게 보라. 51년생 한 곳에만 제대로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63년생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라. 75년생 알찬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니라. 87년생 요행이 따르는 하루가 될 수도 있느니라. 99년생 공들여 왔던 일이 있다면 협조를 얻어 목표에 진입 하겠다. 행운의 숫자 : 15, 98

辰 40년생 부드러움으로 포용해야 할 때가 되었다. 52년생 성심을 다 한다면 기필코 이루어지리라. 64년생 속단하지 말고 파장 효과까지 예견하고 행동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76년생 방치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게 된다. 88년생 주의해야 할 것은 철저히 살펴야 하느니라. 00년생 미진한 점이 있다면 대충 넘기려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밝혀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43, 50

巳 41년생 이전하거나 확장해도 된다. 53년생 아무리 아깝고 잊혀 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련을 버려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 65년생 근본에 충실했을 때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77년생 행운이 따르리라. 89년생 발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징후가 보인다. 01년생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망설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27, 97

午 42년생 속아서는 아니 된다. 54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임박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른다. 66년생 원리를 파악한다면 정곡을 찌를 수 있다. 78년생 심오한 뜻을 깨닫는다. 90년생 일에도 시기와 조건이 있는 법이니 다방면으로 살펴보고 행하라. 02년생 분간하기 힘들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24, 90

未 31년생 비슷한 국량으로 환원될 것이다. 43년생 확신이 없다면 삼가라. 55년생 가는 곳마다 반기니 세상 살맛 날 것이다. 67년생 추진하던 일은 차질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속에 해답도 있음을 간과하지 말라. 79년생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바로 그 날이 될 것이다. 91년생 자발적으로 응하는 것이 유익하다. 행운의 숫자 : 16, 66

申 32년생 호조를 띠면서 진척을 보이겠다. 44년생 몇 갑절의 노력을 경주해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56년생 취약점이 보이거든 망설이거나 합리화 시키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고쳐야 한다. 68년생 강온을 조절하면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되자. 80년생 강한 신념이 바탕이 되어야 능률적이다. 92년생 조리에 맞지 않다면 폐기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32, 80

酉 33년생 꾸준해야 실효적임을 인식해야 한다. 45년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57년생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긴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 옳다. 69년생 가치와 실익의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혁신적으로 궤도 수정을 해야 할 시기이니라. 93년생 면밀히 살펴본다면 여러 곳에서 손질해야 할 부분이 눈에 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86

戌 34년생 극복 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46년생 가장 절실한 부분에 확실히 집중하는 것이 적절하다. 58년생 아무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불편하더라도 참는 것이 덕일지니 부드럽게 화합하라. 70년생 길사가 가까이 다가서고 있다. 82년생 처음부터 점검해야 겠다. 94년생 반드시 실속 있는 관계로 이끌어가야 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7, 53

亥 35년생 듣기만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47년생 단순한 비교는 불만만 더 할 뿐이다. 59년생 인위적으로 행해서 될 일이 아니로다. 71년생 일관된 소신이 있다면 목적 달성을 하리라. 83년생 음양의 기운이 교체하는 시기이니 신중을 거듭하라. 95년생 원칙을 무시하고 대충하다가는 괴로울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28, 87